

사회

도둑 든 집 또 털려... 불안한 변두리

남구 대촌동 등 농촌지역 절도사건 잇따라 인력 부족·CC-TV 설치 안돼 범죄 무방비

광주의 농촌지역에서 빈집털이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치안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범인이 잡히지 않거나 절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달 말께 광주시 남구 대촌동 A씨의 집에 누군가 침입, 안방에 보관돼 있던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갔다. 앞서 지난달 중순에는 인근 비닐하우스에 보관돼 있던 수십 만원 상당의 고추 지지대용 철근이 도난당

하는 등 농촌지역에서 크고 작은 절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 농사를 짓는 한 주민(45)은 "3개월 전 집이 털렸는데, 지난달 말에 또다시 도둑이 들었다"며 "주민 대부분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경찰의 치안 활동이 도심 또는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이뤄지면서 농촌지역 관할 파출소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배치돼 범죄 대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승촌·지석·이장·대지·화장·도금동 등 총 15개 법정동으로 구성된 남구 대촌동은 광주의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남구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관할 파출소 인원은 소장과 관리직원을 포함해 총 9명에 불과하다. 파출소 운영이 3교대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 2~3명의 경찰관이 방대한 농촌지역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도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폐쇄회로(CC)-TV도 각종 절도사건이 급증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된다. CC-TV가 도로와 골목길 등 곳곳에 설치된 도심과 달리 농촌지역에는 전무한 상태다.

또 농촌지역은 CC-TV 부족과 함께 대다수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해

낮 시간 동안 동네 곳곳이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 검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용의자 추적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농촌지역 주민들은 현재 도심과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뤄지는 치안인력과 CC-TV 배치가 균형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 한 파출소 관계자는 "일부 파출소의 경우 광범위한 관할 구역을 순찰하는 데만 2시간 이상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행정기관과 협조해 CC-TV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시꺼먼 화재 연기

4일 낮 12시에 광주시 서구 유덕동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이나 5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를 내고 소방대원들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농민 애타게 우는데...

전남경찰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 19%

김태원 의원 국감자료

채소값 인상으로 농산물 절도가 빈발하는 가운데 전남경찰의 최근 수년간 농축산물 절도범 검거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남에서는 2004년 이후 총 1481건의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했으나 검거는 19.1%인 283건에 그쳤다.

전남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한해 평균 203건의 농축산물 절도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전국 4위에 해당하는 61건이 발생했

다. 이중 ▲들판 절도 27건 ▲곳간 털이 17건 ▲축산물 절도 17건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 요금소 등 주요 도로목 검문을 철저히 하고 농산물 밀려 있는 곳의 순찰, 주요 장소 감시카메라 설치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축산물 절도는 1년 농사를 송두리째 망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증거 확보가 어렵고 장물처분이 쉽다"며 "다른 범죄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정미소나 축사 등 범죄 취약지를 지정하는 등 관리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섬엔 치안센터 없고...

유인도 276곳 중 파출소 있는 곳 고작 78곳

전남경찰청 국감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력·시설 운용실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은 4일 전남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남의 276개 유인 섬 가운데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78곳에 불과하다"며 "연륙 지역 20곳을 뺀 178곳에는 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없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육지 경찰의 출동이 곤란해지면 신속한 조치와 사건 현장 보존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세환 의원은 "지난해 채용된 신입순경 31명 전원, 올해 17명 중 9명이 해남·고흥·완도 등 농어촌 지역으로 배치됐다"며 "목포·여수·나주 등 도시권에서 상대적으로 젊은 경찰 수요가 많은데도 신입 순경을 농어촌에 일괄적으로 배치하면 장기적으로 치안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경위 이하 경찰관 등 97명을 전출하면서 주거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검감 이상 간부에게 제공되는 관사 중 14곳은 비어 있었다"며 "이를 다른 하위 직원에게 제공하고 통근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중앙교회 전 담임목사 교회 출입 금지"

광주지법

광주지법 제4민사부는 최근 광주중앙교회 전 담임목사 C씨에 대한 출입금지 등 소송에서 C씨의 광주중앙교회 출입을 금지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C씨는 광주중앙교회의 대표자로서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원고 정모 광주중앙교회 임시 당회장의 직무 수행

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C씨는 광주중앙교회 구내에서 당회장이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C씨가 광주중앙교회 출입금지 등의 결정을 어기는 행위를 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건당 100만원을 지급토록 결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주·전주 면허시험장 등 26곳 업무 마비

2시간 전산장애

4일 전남과 전북지역 등 전국의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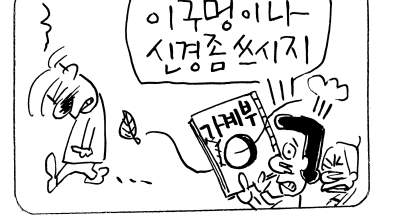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경부터 약 1~2시간 동안 전남(나주)·전북(전주)운전면허시험장 등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

산장애가 일어나 한동안 업무가 마비됐다.

이날 전산장애는 지난주 이뤄진 네트워크 시스템 교체로 발생한 것으로 교통공단은 전산장애와 관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나원침 (8409) 김종두



충장축제서 초등생 돈갈취

여중생 셋 입건

광주동부경찰은 4일 충장축제에 온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광주 모 중학교 3년 이모(15)양 등 3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 등은 지난 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1가 한 오락실에서 초등학생 이모(11)양이 가지고 있는 4000원 짜리 놀이기구 탑승권을 빼앗는 등 충장축제 기간 동안 8명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10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양 등은 충장축제 기간에 인기 가수 공연을 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이 몰린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그만 만나자" 앙심 여친 차량 감금



○이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수시로 협박하고, 차량에 감금한 30대가 결국 경찰서행.

○4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한 모(31)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1일까지 전 여자친구 김모(23)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뒤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을 주는가 하면 강제로 김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경남 사천까지 끌고 갔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약 2개월 전 나이트 '부킹'을 통해 김씨와 사귀게 된 한씨는 최근 김씨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해병대 내년부터 월 1개 기수만 선발

빨간명찰 60명 회수

해병대는 매월 2개 기수를 선발하던 것을 1개 기수로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신병양성체계를 마련했다.

해병대사령부는 4일 백령도 6여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보고자료를 통해 "신병 양성교육체계를 연 24개 기수 선발에서 12개 기수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수 차이를 뒤 '기수열외' 또는 같은 달 입대한 2개 기수

간 서열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지난 8월부터 해병대에서 구타·가혹행위로 '빨간명찰'을 회수 당한 병사가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신화용 의원(민주당)은 4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된 구타·가혹행위, 언어폭력 등 병영생활행동강령 위반으로 빨간명찰을 회수당한 인원은 총 60여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물상은 털리고... 고물수집상은 흠치고

남부경찰 20대·60대 검거

고물상을 탄 20대와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훔친 60대 고물수집업자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4일 심야시간대 고물상에 침입해 고가의 고물을 훔친 남모(2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마북동 김모(44)씨의 고물상에서 270만원 상당의 구리를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광주와 화순지역 고물상 4곳에서 6차례에 걸쳐 총 440만원 상당의 고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경찰조사 결과 남씨는 리어카를 이용해 고물을 훔친 뒤 다른 고물상에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경찰은 또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자재를 훔친 고물수집업자 주모(6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주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께 남구 백운동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용 램프 등 10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씨는 공사 현장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면서 경찰에 달미를 잡혔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경·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서기보 7급 검찰직 영문소장(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부서관 9급 아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